

이렇게 기도하라! - 7. 인도하심 구하기

마태복음 6장 9-13절

9. 그려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기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굳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도 피곤하고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 염려 없이 곳간에 많이 채워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이란, 그날 먹을 빵을 의미합니다. 가장 절실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빵’이란 아주 기본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빵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것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빵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에도,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오늘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풀 밀러의 [일상 기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덜 바쁜 삶을 얻지 않는다. 대신, 덜 바쁜 마음을 얻는다. 바삐 돌아가는 바깥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내적 교요함을 누릴 수 있다.”

이 기도가 바로 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자비하심과 더불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옆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사이의 구별을 아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신양인의 삶을 구별 짓는 아주 중요한 분깃점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지만,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결핍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방법이 여기서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하는 것이 많은데, 늘 채워지지 않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방법으로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쌓아두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자기 방어적이 되고, 결국은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점점 관계의 벽은 높아지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란 이런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 ‘냉전시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누가 먼저 핵을 사용해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끊임없이 핵을 만들어 왔고,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 ‘핵 확산 금지’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오직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지, 가지지 못한 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사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권리 를 부르짖지만 더 이상 그러한 행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는 또 다른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가해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낼 능력이 없는 자신들로 인해 두려움이 커 가는 것이죠. 잘 아시죠?

아주 작은 동물들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장하는 방식을 말입니다.

몸에 공기를 넣어 부풀리기도 하고, 모든 털을 서도록 만들어 자신을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소극적으로 자신의 색을 바꿔 숨기도 하고, 독을 숨기고 있다 치명적은 독을 날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세상이 가진 이러한 삶의 방식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제와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려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는 더 이상 서두르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삶의 속도를 멈추고 느리게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3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나 밑을이 작은 자들아

그려므로 열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부분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죄와 악’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뭔가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넘어 ‘무엇으로’ 인도해 달라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동기를 부여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우리에게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둑려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얹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런 고백이 괜히 나온 것일까요? J. D. 그리어의 [기도먼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년 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젊은 목사 10명 중 절반이 지금은 어디론가 증발해 버렸다. 그 중 5명은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중요한 다른 일로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거대한 교회와 사역 기관을 이끌고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지만 심각한 권력 남용이나 탐욕이나 부도덕으로 인해 목사직을 잃고 말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고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비껴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 분의 완성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기도한다는 의미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인도하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시 25: 4)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시 25: 5)

이러한 상태는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히 ‘본능적’으로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농구선수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특히 공중에 떠서 현란한 몸짓으로 덩크슛을 날리던 그의 모습은 거의 전설적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환상적인 덩크슛을 완성시킨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조던 선수, 그런 덩크슛을 사전에 계획합니까?” 조던의 대답입니다.

“전혀요. 주로 점프한 뒤에 공중에서 결정합니다.”

경기의 승부를 가르는 멋진 슛은 거의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능한 마이클 조던도 그런 슛을 날리기 위해서는 본능적인 감각이 나올 때 까지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깊이 공부하고 그 지식을 몸에 배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낫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분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요청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겸비'라고 되어 이는 부분이 '스스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겸비하다'의 원뜻은 "무릎을 끓다" 혹은 "엎드리다"입니다. 무릎을 끓고 엎드리는 것은 그 앞에 계신 분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공경, 그리고 그 분을 가장 높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라는 말은, 교만했던 자신을 모두 다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낫추는 섬김의 자세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표현을 회개의 순간에 자주 사용합니다. 회개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겸비함'은 좁은 의미에서는 회개라고 사용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겸비함이 있어야 비로소 그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겸비함,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본질

이미 살펴본 '악한 길'의 핵심은 겸비함의 반대가 되는 '교만'입니다. 인생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죄인들의 뿐만 아니라 깊은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 죄를 물으시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가인은 자신의 죄에 비해 벌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거두어 먹는 삶이 아닌 스스로 벌어먹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과학과 기술로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던 때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부터였으며, 이제는 시대 전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신들이 개발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최고도에 도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겸비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겸비함, 신앙인의 참된 모습

그런데 겸비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마지못해 행하는 '형식적인 겸비'입니다. 자기 속에는 그것을 행해야 하는 내적인 동기가 없으며, 곁으로만 겸비를 표현합니다.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수단이 되어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율법적인 겸비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으로 겸비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겸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비는 그 마음속에 '내적인 동기'가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비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비함은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겸비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 겸비한 자는 언제나 두 손을 모으고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며 마침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 백성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며,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bsmilal2.tistory.com/entry/하나님-앞에서-겸비하라대하-714> [bible and knowledge]

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 아버지’인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주님의